안종철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조지 M. 맥큔을 중심으로

머리말

미국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한인식과 정책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어왔다. 대한정책은 지정학적・전략적 사고의 틀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정책결정의 이면에는 정책안 작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사고와 입장이 있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제각기 다양한 형태의 한국관련 경험과 정보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냉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한국에 대한 지식은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해방 전후 미국 지식인들의 한국인식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최근에 제시되었는데, 특히 미국의 아시아학 관련 기관지들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1] 아울러 미국의 한국

학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1960년대 미국에서 본격화된 한국학 연구경향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룬다.[2] 그러나 식민지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학의 초기 구축과정에 대한 분석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못했고 다만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이하 IPR)의 앤드류 J. 그라즈단제브(Andrew J. Gradjdanjev, 1899-?)의 저술에 대한 분석 정도가 이루어졌을 뿐이다.[3] 그러므로 아직도 한국관련 인사들의 저술들은 학자들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 연구경향을 염두에 두고서, 보다 포괄적인 검토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도권 기관에서 최초로 한국학을 가르친 조지 M. 맥큔(George M. McCune, 한국명 尹安國; 1908~1948)과 그의 한국인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다른 곳에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를 자세히 분석한 바가 있으므로[4] 여기서는 그의 한국학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가능한 간략히 언급하면서 해방 후 그의 역사와 현실인식이 당대 미국의 대한정책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해방 후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했다가 1차・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의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소련과 갈등을 벌였다.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어서 1948년 여름과 가을, 남북한 두 정권의 탄생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맥큔은 국무부 극동국 한국과장직을 사임하고 나름대로 남북분단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정책의 조정을 건의하거나 미국 내 여론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또 그는 제도권 대학에서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해서 미국

의 한국정책에 기여하려고 했지만 40세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 그의 경우는 미국 내 한국학의 구축의 전형적인 과정, 즉 선교사 혹은 후손의 제도권 기관에서 학위취득, 제2차 대전 때 미국정부에 대한 협력, 전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활동 등을 보여준다. 그의 지식의 장점과 한계 등을 통해 미국의 한국문제 이해의 한 방식이 드러날 것이다.

1. 맥큔 가족과 구미한국학 탄생의 환경

맥큔의 아버지 조지 S. 맥큔(George S. McCune, 한국명 尹山溫; 1873~1941)은 한국사, 특히 한국개신교사에서 윤산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873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파크대학교(Park College)와 미주리대학(Missouri State University)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쳤고 초등학교・중학교의 교장을 역임을 했다. 그는 1905년 여름에 미 북장로교파의 교육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해서 활동했다. 그는 네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안나 캐서린 맥큔(Anna Catherine McCune; 1906~1995), 조지 M. 맥큔(1908~1948), 헬렌 마가렛 맥큔(Helen Margaret McCune; Peggy, 1911~1984), 샤논 맥큔(Shannon McCune; 1913~1993)이다. 자녀들은 한국에 입국했던 다른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주로 결혼했는데 예를 들면 큰 아들 조지는 아더 L. 베커(Arthur L. Becker, 白雅德)의 딸인 에블린(Evelyn, 1907~)과 결혼했고 동생 샤논은 윌리엄 N. 블래어(William N. Blair, 邦緯良)의 딸인 에디스(Edith)와 결혼했다. 조지만

아니라 그의 부인 에블린과 남동생 샤논도 한국학을 연구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가르쳤다.[5]

주지하듯이 윤산온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 사건인 '105인사건'과 3·1운동,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인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한국인들에 대해 동정적이었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해방 후에 한국인 엘리트층을 구성한, 백낙준(연세대학교 총장, 문교부 장관), 이훈구(미군정 농림부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박형룡(장로교 신학교 총장), 박윤선(합동신학교 총장) 등 개신교·교육계 인사들의 중요한 지원자였다.

그는 1935년경부터 일본 제국 내에서 진행된 신사참배 강요 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참배를 거부했다. 결국 1936년 봄에 숭실전문학교 교장직을 박탈당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6] 윤산온의 한국 내 활동은 북장로교 선교사로서의 보수성과 교육선교사로서의 한국인들에 대한 애정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 돌아간 윤산온은 무디 성서학원(Moody Bible Institute)에서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유학생들의 자문위원이 되어 학생들 모임에 초대되어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의 장례식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던 날에 이루어졌는데 전쟁 발발을 통해 그의 한국 관련 활동은 자녀들의 한국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이어졌다.[7] 태평양전쟁 발발로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몇몇 아시아 관련 학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리는 글을 저널에 기고했다.[8] 다음 표는 당시 한국관련 단행본과 학위논문들의 목록이다.

[표 1]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한국전쟁 시 한국관련 저술들(발행연도순)

저자	저서 및 출판지	참고사항
Clarence N. Weems	“Comparative Methods of Japanese Expansion in Korea and Manchuria”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38)
George M. McCune	“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박사학위 논문(1941)
Fred H.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이광린, 『개화기의 한미관계』(일조각, 1973)로 번역됨.
Andrew J. Gradjdanzev	Modern Korea(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4)	IPR관련 연구. 이기백에 의해 『한국현대사론』(일조각, 1973)으로 번역됨.
Robert T. Oliver	Korea: Forgotten Nation (Washington D. C.: Public Affairs Press, 1944)	이승만의 주미외교위원부의 선전저서의 성격이 강함.
Melvin F. Nelson	Korea and the Old Orders in East Asia (Bat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45)	중국의 속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함.
Charles C. Mitchell, Jr.	"The New Korea Company, Limited : Land Management and Tenancy Reform in Korea Against a Background of United States Army Occupation, 1945-1948"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49)/ 미첼은 미군정하에서 귀속재산분배를 담당했다.
George M. McCune & Arthur L. Grey, Jr.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IPR관련 저서.
E. Grant Meed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저자의 경험을 통한 미군정 통치에 비판적인 저서로 안종철, 『주한미군정연구』(공동체, 1993)으로 번역됨.

위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관련 학위논문 혹은 단행본의 숫자가, 수십 권에

달하는 중국과 일본관련 서적에 비해 매우 적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외에는 이 시기에 새로 저술된 한국관련 저술이 거의 없었으므로 해방 후 미군정측은 위의 연구들과, 한국문제를 다룬 선교사 혹은 개신교 인사들의 이전의 글을 통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9] 둘째, 한국의 대외관계가 아닌 한국사회 자체의 문제를 심도 깊게 천착한 연구가 적었다. 즉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든가 대외정책 하에서 한국문제를 다루었다. 셋째, 해방 후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된 저서는 대개 일본 통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글이거나 초기 한미관계를 다룬 것이 대부분으로 해방 후 한미관계에 직접적인 함의를 가진 연구들이 아니었다. 넷째, 한국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글들은 대개 미군정의 통치에 대해 비판적인 글들인데 그 중에서 맥큔의 글이 가장 눈에 띈다. 그러므로 맥큔의 글을 분석하는 것은 당시 태평양전쟁 발발과 미군정 하의 미국 지식인의 한국문제 인식에 또 다른 창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2. 해방 이전 맥큔의 한국인식

맥큔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이하 OSS)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전쟁 막바지에 국무부 극동국 한국과의 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대체로 미국 정부의 전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미 당국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

했다.[10]

신탁통치안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문제에 대해서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는 이승만 중심의 한인독립운동과 이승만의 경쟁자로 떠오른 중한민중동맹단의 한길수의 활동, 둘 다에 반대했다. 맥큔은 보다 젊은 인사들이 미국 내 한인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승만을 상징적인 위치에 두면서 미국 당국이 한인 통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11]

어떤 의미에서 태평양전쟁기 맥큔의 정부 관료로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정책결정권자라기보다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실무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관련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국무부 관료를 사임한 후인 1946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로 돌아가서 후진양성과 저서와 논저 출간을 통해서 한국문제를 미국사회에 제기하는 길을 택했다. 관료 생활을 계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학자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한 선호 이외에도 그의 심장병 재발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12]

[사진 1]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조지 맥큔 *출전: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맥큔(GMM)문서철

그는 서양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활용, 19세기 한국사를 연구해서 1941년 봄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에서 19세

기 조선의 대외관계,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다루었다.[13] 그의 전통시대 한국사 인식은 해방 전후의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되므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학위논문에서 당시 서구 연구자들이 지닌 조선에 대한 통념들을 반박하고자 했다. 첫째,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선이 '사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념과 달리 "무시할 수 없는" 무역교류가 있었는데 이는 두 국가 "양쪽에 이익"이 되는, "물품의 의미 있는(valuable)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중국이 "한국의 대외관계"에 "어떠한 형태의 통제"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즉 사대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해가 깊었던 것이다.

둘째는 당시 조선과 일본 관계에 대한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등이 확립했던 역사인식의 통념, 즉 조선이 일본에 "1832년까지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등의 인식체계를 반박했다.[14] 그는 조선 초기와 17세기 초에 설정된 정책인 "교린(交隣)관계"는 중국과의 "사대관계"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린관계"는 "문화적 친밀성"에 기초했다기보다 "조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가까운 것이었다.[15]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전통적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서 사대교린체계의 핵심과 더불어 한반도의 독자성에 대해 그가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맥큔의 전통사회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와 해방 후의 문제에 대한 그의 이해에도 반영되었다. 한 평자는 맥큔의 일련의 작업들이 "한국인들의 삶과 경제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에 대해, 균형이 잡히면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평가를 시도했다"고 평가했다.[16] 해방 후의 한반도 현실에 대한 그의 평가는 식민지시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식민지시기에 대한 그의 평가부터 살펴보자.

정치 문제에서 중요한 논점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맥큔은 전근대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은 단지 "작은 부락(small villages)"과 "가족이라는 사회적 범위(social circle of the family)"에서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식민지시기의 민주주의 경험은 조선시대와 달리 "작은 부락 내 정치"와 "기독교 기관들"에서만 목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17] 전체적으로 그는 조선시대와 식민지시기의 민주주의 경험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는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사들과 개신교인들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문자해독"과 "교육"의 성장으로 한국인들이 해방 후 "자신들을 통치하는 데 심각한 방해"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18] 비록 전근대 "한국정부의 전제주의(despotism)와 비효율성," 식민지기 일본인들의 "효율적이지만 전제적인 행정"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보통사람들" 내에서 서서히 "지도력"이 "발달"하고 있다고 그는 보았다. 즉 맥큔은 식민지 시기 내 성장한 한국인들의 자치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 한반도 주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믿었다.[19]

경제문제에서 맥큔은 일본의 한국지배가 한국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비록 그는 식민지시기에 철도・도로・항만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성장을 인정했지만 식민지하의 경제발전은 "한국경제의 일부분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식민지 내 일본의 자본투자가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수출"과 일본공업을 위한 "원료 생산지"로서의 한반도의 활용은 결국 한국인들에 대한 "경제적 차별"과 "소외"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시체제기 식민지 내 일본경제가 한국경제로 바뀌기 위해 일본의 "전시목표들"이 한국의 "평화 시 목표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그러나 그는 일제의 잔재를 잘 활용하면 한국경제가 전후에 성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한국경제에 대한 입장은 태평양문제 연구회(IPR)에서 활동한 그라즈단제브의 '식민착취론'을 받아들인 것이었다.[21]

3. 해방 후 맥큔의 한국인식과 대한정책

맥큔은 해방 후 남북의 인위적 분할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38선 분할로 인해 남북 양쪽 어디도 "경제적 독립을 위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았다.[22] 이는 "중공업"과 "자연자원"은 북에, 대부분이 원료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 공장"은 남쪽에 있었으며 농업부문에서 북은 "밭농사", 남은 "논농사"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3]

흥미롭게도 맥큔은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해방 직후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국무부 극동국을 떠나기 직전, IPR 미국지부가 발행하는 『극동개관(Far Eastern Survey)』에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전후 입장을 역사적 경험에서 유추해보고자 했다. 청일전쟁 후인 1898년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니시-

로젠협정(Nishi-Rosen Convention)을 맺었다. 그는 이 협정이 맺어질 무렵에 러시아가 한국의 내정에 대한 "직접적 간섭"을 철회하고 요동반도의 "뤼순과 다롄"을 "조차(lease)"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그는 러시아가 만주에서 "얼마간의 이득"을 얻는다면 그들의 "극동에서의 주요한 이익 중 얼마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았다.[24] 이 주장이 가진 함의는 분명했다. 즉 1945년 2월 얄타회담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로 만주에서 소련의 이권을 보장해주었는데,[25] 만약 얄타회담의 정신이 잘 실천된다면 소련은 한반도의 독립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 2차 대전 하의 미소협조주의가 지속된다면 한반도에서 미소대립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미소협조주의 노선과 유사하다.

신탁통치 파동이 지속되던 1946년 2월에 발표한 글에서 맥큔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 1월에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시작되면서 모스크바 협상 내용 중 한국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미소가 대립했다. 미국은 "보수적인, 한국의 (중경) 임시정부"와 "보수적 소수파"인 한국민주당 계열을, 소련은 "좌파인 인민공화국"을 지원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불행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승만의 귀국이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믿음이 실제 이승만과 김구 등 임시정부 인사들의 귀환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였다.

그런데 맥큔에게 더 큰 문제는 워싱턴 고위당국이 한국을 "의붓자식(a step child)" 보듯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의 상황이 "좀

더 진지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면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6] 그래서 맥큔은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의 부족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버클리에 단기 한국전문 외교관 양성소를 만들려고 했다. 그가 "한국 역사・정치・외교"를 담당하고 부인이 "문화・예술・철학" 등을 담당하며 한국인 강사 최봉윤이 한국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을 세우고 국무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안은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7]

맥큔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저널에 한국문제를 기고하면서 부지런히 한국관련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28] 그는 1947년 1월, IPR 기관지인 『태평양문제(Pacific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상황을 평가하면서 미 고위층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다시 촉구했다. 그는 1946년 11월에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남한의 '과도입법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두 개의 다른 체제가 한반도에서 탄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승만이 1946년 말 방미 시 보여준 '단정수립안' 홍보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렇지만 그도 이 시점에서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보충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만약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문제는 "공정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고위급에서 정책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두 개의 식민지 또는 위성(puppet) 국가"로 분단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29]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가기로 결정된 1947년 가을, 그는 한반도

의 대립되는 체제의 성장을 매우 우려하면서 "조만간 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극단적인 우파들"이 남한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활동하며 때로는 미군정 측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중간파적인(middle-of-the road) 한국정부"가 남북 점령당국의 "공동보증" 아래에서 "한국임시정부"를 설립하는 것이었다.[30] 그러나 이는 1947년 가을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안이었다.

맥큔이 남한에 있었다면 아더 번스(Arthur C. Bunce) 등 국무부 고문단의 '중간파'를 활용한 정치적 지형의 재편성과 사회경제적 개혁을 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맥큔이 소련과 북한의 입장에 동조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소련의 미소공동위에서의 입장, 즉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대상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 곧 "한반도의 공산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한반도에서 선거가 결정되어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거를 감독하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to Korea, UNTCOK)이 선거를 통해 구성될 새 정부에 "중도파"를 수용하도록 권고한 점을 중시했다. 즉 그는 "중도파"를 통한 한국사회에 대한 개혁만이 한반도의 예정된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를 주시했지만 그에게 남북연석회의는 각 정파 간의 "화해"보다는 "노골적인 전투(open conflict)"를 포함한 "깊은 적대감"을 드러내는 실망스러운 것이었

다.[31] 결국 한반도 문제는 국무부의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안이 한반도의 변화하는 현실과 괴리되면서 미 정부가 남한 미군정 측의 단정수립안을 추인하는 식으로 처리되었다.

그의 해방 후 한국사회에 대한 깊은 인식은 1950년대 미국 내에서 그리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출간된 그의 책, 『오늘날의 한국(Korea Today)』의 '자유주의적' 입장은 맥카시즘의 광풍 아래에서 혹평을 받기도 했다.[32] 이는 맥큔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무부 극동국 일본과장을 역임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일본사를 담당한 휴 보튼(Hugh Borton)의 『일본의 근대세기(Japans' Modern Century)』라는 책이 미국 내 각 대학에서 중요한 일본사 교재였다는 사실과 매우 대조가 된다. 맥큔과 보튼의 운명은 미국 내에서 1950년대 한국학과 일본학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맥큔의 때 이른 사망은 "잘 정비된 일본과 중국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학계의] 노력"에 큰 타격이 되었다.[33] 결국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확산과 대학 내 후진 양성이라는 그의 기획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미국 내 학문분과로서의 한국학은 1960년대의 부활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미국의 한국학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통념이 굳어졌던 것이다.[34] 잊혀진 미국 내 한국학 창시자의 업적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나마 이후 간접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대체로 그의 미군정에 대한 인식이 중심이 되었을 뿐이고 전통시대와 식민지시기에 대한 연구 업적은 거의 잊혀졌다.[35]

맺음말

이상에서 맥큔의 한국학과 그의 현실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아버지 윤산온은 한국과 30년 가량 한국과 관계하면서 한국인들의 민족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었다. 아들 맥큔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한국 연구는 그의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한국인들의 능력을 비하하지 않았고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OSS 등의 정보기관과 미 국무부에서 한국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분열상을 이유로 한국인 독립운동기관들의 통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미 당국의 입장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전문가들이 포진한 미 정보당국과 국무부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즉 소수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그는 정부기관의 직책을 사임한 후 버클리에서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했다. 동시에 그는 저작을 통해 한국이 '중도적인 노선'하에서 개혁을 통해 좌우대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마저도 해방 후 한반도가 분단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감으로 그의 한국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자신의 몸을 해치게 되었다. 그의 건강악화는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미국 내 한국학 정착이라는 기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학은 1960년대에 새로운 세대의 성장을 기다려야 했다.

|미주|

1) 고정휴, 「식민지시대 미국 지식인의 한국문제 인식-태평양문제연구회(IPR)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2005. 12); 김점숙, 「해방 이후 미국 지식인의 한국 인식-Far Eastern Quarterly, Far Eastern Survey, Pacific Affairs를 중심으로」, 같은 저널.

2) 대표적으로 『역사비평』 59(2002, 여름호)는 "미국의 한국사 연구"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여기에 실린 여러 글, 특히 박태균, 「미국의 한국사 교재 분석」을 참조. 한국과 미국의 한국사 연구 경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Kim Keong-il, "Over Contested Terrain: Currents and Issues of Korean Studi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6/2(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3)를 참조.

3) 고정휴, 「A. J. 그라즈단제브와 『현대한국』」, 『한국사연구』 126(한국사연구회, 2004).

4) 필자는 맥큔을, 공간된 외교자료가 아닌, 1930년대 초 공개된 『조선왕조실록』 등 전통시대 한국, 중국의 자료를 활용해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최초의 미국인" 학자로 규정했다. Jong Chol An, "Making Korea Distinct: George M. McCune and His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7(Institute of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p.157.

5) 윤산온의 가족에 대해서는 안종철, 「윤산온의 교육선교 활동과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23(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년 9월), 73~76쪽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87~92쪽.

7)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윤산온은 한국에 대한 출판물 발간을 통해 한국관련 정보를 미주에 제공하고자 했다. "Research Monographs on Korea"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그것인데 그의 사망 후 두 아들이 한국연구 연구원(Korea Research Associates) 자격으로 발간을 계속 진행했다. Shannon McCune, *Views of the Geography of Korea 1935~1960*(Seoul, Korea: The Korea Research Center, 1980), Appendix B 참조.

8) 논문들에 대한 개략적인 목록은 김점숙, 「해방 이후 미국 지식인의 한국

인식」, 164~165쪽의 표 참조.

9) 미군정 측이 군정 장교들에게 배부한 한국에 관한 책들은 주로 선교사들인 호래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J. 에네스트 피셔(J. Ernest Fisher),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등의 저서이다. 보다 자세한 목록은 한준상,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해방전후사의 인식』 3(한길사, 1987), 604~605쪽.

10)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216~218쪽 참조.

11) 맥큔의 OSS 내에서의 활동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안종철, 위의 논문, 202~210쪽 참조.

12) 그의 연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Jong Chol An, "Making Korea Distinct," pp.184~185.

13) 박사논문의 제목은 "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 Ph. D. Diss. in History, Graduate Division, University of California이다. 박사논문에 대한 분석은 Jong Chol An, *Ibid*., pp.169~174.

14) 맥큔은 오히려 일본(특히 대마도)이 조선의 허락없이 사절단을 보내서 자주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가 비판한 서구의 학자와 관료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와 윌리암스(Williams)대학 총장을 역임한 타일러 데넷(Tyler Dennett), 국무부 극동국장이었던 스탠리 혼벡(Stanley K. Hornbeck),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를 역임한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 등이다. George M. McCune, *Ibid*., pp.252~256.

15) 조선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Ibid*., pp.123~124, 249~250 등을 참조.

16) Memorial Article for McCune by C. Martin Wilbur in *The Far Eastern Quarterly*, 9/2 (February, 1950), p.190.

17) George M. McCune, *Korea Toda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p.15, 6.

18) H-204, "Korea: Capacity for Independence: Literacy and Education," 정용욱·이길상 편,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 1권(돌베개, 1994), 497~504쪽.

19) 그는 한반도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한국인들이 "자유를 유지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조성되어야 할 주변 환경으로 1. 끔찍한 내전 없이 38선이 철폐, 2. 러시아로부터의 압력 완화, 3. 재등장하는 일본의 압력이 완화될 것 등을 들었다. George M. McCune, *Korea Today*, pp.6~7.

20) *Ibid*., pp.29~39.

21) 맥큔 자신도 이 점을 인정했다. *Ibid*., p.30. 그라즈단제브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귀화한 일본경제 전문가로 맥아더 연합국사령부의 민정국에서 활동했다. 1952년에 맥카시즘 청문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의 저서에는 이훈구의 연구가 상당히 활용되었다.

22) 그는 38선 분단이 "지형적 기초"나 "정치경제적 근거"없이 그어진 것으로 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주 공업지대로 항만은 남쪽에 공업지대는 북쪽에 있었다. George M. McCune, *Korea Today*, p.54.

23) 그는 남과 북의 거주인들의 지역적 차이가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George M. McCune, *Ibid*, pp.52~60; Jong Chol An, "Making Korea Distinct," pp.177~178.

24) George M. McCune, "Russian Policy in Korea: 1895-1898," *Far Eastern Survey*, 14/19 (1945), p.274. 그는 이 글을 위해 서울 미 총영사관 문서와 러시아 문서의 영문 번역본, 일 외무성발간의 영문자료 등을 활용했다. 맥큔의 저술 목록은 Jong Chol An, *Ibid*., Appendix 2.pp. 186~188.

25) 국민당 장개석 정부로부터 소련이 확보한 다롄항 조차(租借) 등의 이권을 말한다. 미국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대가로 만주에서의 이권을 약속했다. 가브리엘 콜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전후 처리문제」, 브루스 커밍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일월서각, 1983), 59~65쪽.

26) George M. McCune, "Occupation Politics in Korea," *Far Eastern Survey*, 15/3 (1946), pp.33~37. 한편 그는 인민공화국 측과 임시정부 측의 "산업국유화" 정책 모두에 깊은 의구심을 가졌다.

27) George McCune to Edwin Martin(Department of State) 1946년 3월 16일,

Martin to McCune 1946년 3월 27일(740.00119), 국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 사자료집: 주한미군정치고문문서』 19(국사편찬위원회, 1994), 39~42쪽.

28) 그는 건강 때문에 1945년 10월 국무부를 사임한 후 한동안 요양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10월부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에서 한국사강좌를 담당했다.

29) George M. McCune, "Korea: The First Year of Liberation," *Pacific Affairs*, 20 (March, 1947), pp.7~17. 당시 워싱턴에서 조선사정연구소(Korean Affairs Institute)를 운영한 김용중도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김용중은 맥큔과 교류관계가 있었다.

30) George M. McCune, "Post-War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The Journal of Politics*, 9 (November, 1947), pp.622~623. 당시 한국을 방문한 상당수의 인사들이 좌우대립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미국 '민권연맹(Civil Liberties Union)' 대표인 로저 볼드윈(Roger N. Baldwin)은 남한을 2주간 방문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지 극단주의자들만 한국(Korea)에서 용인된다. 즉 친소련주의자 또는 우파. 만약 당신이 자유주의자(liberal)로서, 친일협력자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경찰이 정치에서 손을 떼어야 하고, 노동조합이 파업의 자유를 가져야 하고, 남북이 화해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공산주의자가 된다." 그의 "Our Blunder in Korea," *The Nation*, 165(August, 1947) 참조.

31) George M. McCune, "The Korean Situation," *Far Eastern Survey*, 17/17 (1948), pp. 199~202.

32)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권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포스터 덜레스(Foster Dulles)는 맥큔의 저서가 출간되자 IPR의 사무총장인 윌리엄 홀랜드(William Holland)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시점에서 이 책의 출간이 우리나라가 깊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진정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인 지 의문"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했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639.

33) C. Martin Wilbur, "Memorial Article for McCune."

34) 이훈상은 미국 내 한국학이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agner)가 1959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교에서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훈상, 「에드워드 와그너의 조선시대 연구와 이를 둘러싼 논점들」, 『역사비평』 제59호(역사비평사, 2002). 이 논문의 영역 본에 가까운 논문인 "Edward W. Wagner: The Father of Korean Studies in West,"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7/3, (2004); 119~131의 제목은 그의 입장이 좀 더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물론 필자는 와그너와 그의 동년배 겸 제자인 제임스 팔레(James B. Palais), 게리 레드야드(Gari Ledyard)등에 의해 정착된 한국학에 대해 과소평가할 의도는 없다.

35) 맥큔의 현대사 인식을 높게 평가하는 학자는 부르스 커밍스이다. 커밍스는 맥큔이 해방 전후 국무부 내의 "일본국(Japanese Affairs Division)의 유일한 한국전문가"라고 평가했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466. 아울러 그의 현대사 저작을 "소신있는 자유주의자(principled liberal)에 의한 진지한 설명(account)"이라고 평했다. 동 저자,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639.